

# 선거공보

## 김윤오 후보

남부연회 대전서남지방 열린교회

1952년 2월 23일 일생



학력 : 협성 신학대학 졸업(B.D)

목원대학교 신학과 졸업(B.Th)

Oral Roberts University 졸업(D.Min)

목회 : 열린교회 개척 설립 및 담임

남부 연회에서 준회원 허입 (1985년 4월 4일)

남부 연회에서 목사 안수 (1987년 연회 때)

남부 연회에서 정회원 허입 (1989년 3월 29일)

경력 : 목원대학교 총학생회장

대전 서남지방 감리사 및 감리사협의회 회장

총회 실행부 위원 및 연수원 조사위원장

	입교인수	경상회계 수입결산	지방 부담금	연회 부담금	본부 부담금	은금 부담금	선교활동	
							국내	국외
2017	199	245,100,000	2,751,000	2,510,000	완납	완납		

2018	199	220,400,000	3,241,000	2,940,000	완납	완납	
------	-----	-------------	-----------	-----------	----	----	--

## 정책홍보

변화와 회복을 꿈꾸는 남부연회 지금 우리는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제 4 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서비스의 도래를 맞이하면서 변화와 영성 회복에 대한 직·간접적인 요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사회는 물론 우리 교회현장도 변화하지 않고 교회 고유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는 글로벌적인 선의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인 변화와 본질 회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한국의 제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맞물려 교회 역시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변화되어 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 남부연회를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약 628 교회 11 만 성도 여러분!우리 연회 작년 통계에서, 교회(1 개 증가)와 목회자(10 명 증가)는 늘었지만, 교인(5,896 명)과 재정(약 19 억)은 각각 눈에 띄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능동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또한 오직 성경과 기도로 감리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 1. 생산적인 연회로의 변화

### 가) 연회 정책의 변화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 위원회'를 통해 우리 연회 55%를 차지하고 있는 미자립교회(345 교회)가운데 시범적으로 25 교회를 선정하여 연회 예산을 긴축하고 자립교회의 지원 및 총회본부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돕겠습니다.

### 나) 연회 행정의 변화

점점 무미건조해 저서 연회 참여율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심각하게 고민하여 모든 연회원들이 참여하고 싶은 연회가 되도록 하고, 연회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선교적인 교회로의 변화

### 가) 제자를 만드는 교회

### 나)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

100명 이상된 교회는 한 명 이상 선교사 파송특히 인구 유입이 많은 세종 지방을 중심으로 한 선교전략 연구위원회 활동을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 3. 오직 성경과 기도를 통한 감리교회 영성 회복

가) 중세와 같은 돈으로 포위된 교회의 영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나)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을 지펴야 합니다.

#### 4.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 회복(십계명 준수)

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회

나)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내 몸같이 사랑, 선한 사마리아 인

#### 5. 섬기는 선교를 통한 인성 회복

가) 청지기처럼 섬기는 성도

은사확인, 전문성 계발/ 교회 공동체와의 소통

나)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고과나 센터-지역 공동체와의 소통남부연회 회원 여러분!

저는 감독 선거에 임하면서 깊이 고민하며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야 할 시대적 사명은 돈으로 감독이 되려는 소위 돈 선거를 막는 것입니다. 현대판 성직매매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돈 선거는 중세의 성직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독이 되면 위의 사업들을 치중하겠으나 임기 내에 연회내에서 치르게 될 각종 선거는 절대재적으로 돈이 아닌 지도력과 사명감으로 준비된 이들을 뽑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회의 미래는 깨끗한 감독 선거로부터라고 확신합니다. 감독은 단지 2년 연회를 섬길 준비된 목사일 뿐입니다. 저는 담임목사와 감리사 되는데 돈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물론 감독이 되는데도 돈을 쓰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각종 선거도 이렇게 돈으로 타락한 선거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깊고 큼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동참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